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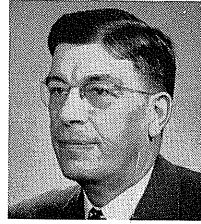
성도의 벗 8

1971



영감의 메시지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고난과 환란, 그리고 온갖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먼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교성 6:36)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고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온갖 원리와 의식의 모체가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의 교리는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열어 줍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기를 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 4:4)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면 우리가 모두 거룩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계획은 인류의 평화를 약속할 수 있는 유일의 계획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계획은 인간을 구원과 승영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천세에 있을 때 제시되었고 우리는 모두 이를 기쁘게 받아 들였습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슬픔과 기쁨을 겪고 고통과 위로를 체험하며 절망과 성공, 질병과 건강을 배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주는 단 것과 쓴 것을 함께 섞어두신 것입니다. 주는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도 다져져야 하고 편안한 속에서도 다져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온전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신앙으로 밖에 견디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 7 권 제 8 호 순 서 1971년 8월호

■ 권두언 : 구원은 우주적인 것 조셉 필딩 스미스	1
신전—하늘의 문 매리온 지 롬니	3
가족과 영원 보이드 케이 패커	8
계보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 하워드 더블류 헨더	13
친구가 친구에게 마크 이 피터슨	15
늙은 래그스의 구원 에바 그레고리 데 피미엔타	16
이러한 것을 나는 배웠노라 엔 엘돈 테너	19
월남의 주일 로저 맥롤린	20
진리의 말씀 : 군중 속에서 너무 많은 날을 한꺼번에 리차드 엘 이반스	23
우리의 젊은이를 준비시킵 해롤드 비이리	24
천부의 은사 조지 듀런트	26
■ 선교부장 메시지 : 회원을 강하게 함 부라운	30
■ 내외 소식	31

성도의 빛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8월 1일

통권 제73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우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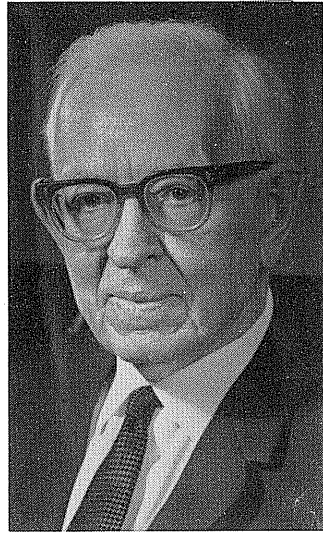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하나로 뭉친 가족의 행복한 모습. 촬영은 도일 엘 그린, 제리 하비, 엘돈 린스 초텐, 로랜드 스파크가 맡았다. 26페이지의 “천부의 은사”를 보라.

구원은 우주적인 것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 말일성도들은 과연 전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연결된 우리의 막중한 임무의 중요성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병들고 완악한 세대를 구하고 개심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백 수억원을 들여 선교사를 온 세상에 보내어 필요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 집회 장소와 교회 학교와 기타 건물을 짓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를 교육시키고 우리 땅을 개발 발전시키며 마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돕고 잡지와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데 전력하고 있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개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님의 신전에서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이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성도의 일하겠다는 열의를 충분히 엿볼수 있는 훌륭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한 여하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게으른 모든 사람의 일을 모두 대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남의 덕으로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개인 개인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그 책임도 한결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여하한 직책에 있었거나 열

만큼 열심히 일하였거나 문제되지 않으며 또 열심히 일하였다고 하여 커다란 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나 평 장로나 그 책임은 다 같습니다. 오래도록 눈부신 업적을 쌓았고 선교사를 했고 스테이크나 기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바치고 교회 집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일년, 이년 아니 이삼년을 선교 사업에 바쳤다고 해서 그 이상의 임무에서 풀려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주어진 특전과 계명을 던져버리면 아무리 전자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징계를 받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책임은 죽은 자를 탐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에만 사람이나 우리 뒤에 올 사람이 모두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의 임무로 정해주셨습니다”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임스 엔드 시즌스 5 : 616)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땅의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에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행해야 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의무로 맡기신 우리와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입니다.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야말로 인간이 시온의 산 위에 구세주로 군림하게 되는 유일의 방편입니다. 복음의 제일 원칙은 개인의 구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전체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써 이웃과 가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인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열의와 헌신이 실제로 역사될 때 영광스러움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좌절의 상황 하에서 인간의 이해를 돕고 용기를 북돋을 것입니다. ...이 교리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이름이 하늘

에 기록되고 육으로 행한 그 행위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자비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경전이 지시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성도는 자기의 명을 달리한 친지를 위한 게으름이 아니오 이로써 자기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타임스 엔드 시즌스 2 : 577—78, 완전의 길 154페이지 참조)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굴레를 쓰게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에게 침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통털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듯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신전에 가서 침례와 확인을 받고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6 : 365)

“.....이 사실을 알므로서 죽한 줄 아나니” 계시에는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선조와 자손 사이에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굳게 연결하는 줄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은 저주를 받는다 함이니 보라 대저 그 사항이란 무엇인고! 이는 곧 죽은 자를 대신하는 침례니라. 이는 죽은자 없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질 수 없음이라. 저들이나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죽은 자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느니라. 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맞아 들이기에 필요 불가결의 것임이라. 이 경륜의 시대는 이제 맞아들이기 시작되었으니, 이 때에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 결합되어야 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분명하게 들어나야 하느니라. 또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밝혀지지 아니하고 현명한 자와 분별이 있는 자에게 숨겨 온 일들이 이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에게 밝히 들어나리라”(교성 128 : 18)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할진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염려함이라. (말라기

4 : 5—6)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함께 묶는다던지 인봉된다는 이야기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를 이루는 것입니까? 열쇠는 전달되고 엘리야의 정신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모이며 시온이 건설되고 성도들이 시온의 산에 구세주로서 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온 산에 구세주가 되는 것일까요? 신전을 지어 침례탕을 건설하고 침례, 확인, 씻음, 기름 부음 등 죽은 자를 위한 온갖 의식을 받고 인봉의 권세가 역사되게 하므로서 선조와 죽은 자를 구하여 저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승영의 영광과 보좌에 들게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에 연결하는 것이나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거니와 이 신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두 신전으로 가 신전 사업을 하고 우리의 세월을 값지게 하며 이땅에 인봉의 은혜가 허가되어 있는 동안 이를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은 자를 구속하고 구할 시간의 여유가 넉넉치 않습니다. 아울러 생존해 있는 친지와 이웃을 함께 모아 이 땅이 파괴와 정죄로 뒤덮이기 전에 구원의 길에 들게 준비시킬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 것입니다”(교회사 6 : 183—8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0페이지 참조)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 역시 우리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서 계속되고 인봉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권세로 아내와 계속되어야 하며 자녀는 부모와 계속되어 우리 모두가 처음 조상인 아담의 때부터 끝까지 뭉쳐져서 아담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커다란 가족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신전—하늘의 문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정원희

● 복음의 회복의 기간에 제시되고 알려진 많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식은 신전과 신전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라 하겠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고대 기록을 번역하는 동안 그는 물문경에 소개되는 신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니파이는 주전 570년에 그가 행한 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 니파이는 신전을 지었느니라. 내가 이 신전을 솔로몬 신전의 모양대로 짓기는 하였으나 솔로몬 신전에 쓰인 바와같은 진귀한 물건들을 그땅에서 구할 수 없었던지라 솔로몬의 신전과 똑같이 건립할 수는 없었느니라. 그러나 건축 방법은 솔로몬의 신전과 같았으며 지어진 솜씨가 대단히 훌륭하였더라.”(니이5:16)

그후 야곱은 신전¹⁾에서 니파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있다.

주전 121년경 “...립하이 왕이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모두 신전에 모여 자기가 전할 말을 들으라” 하였다. (모사이야 7:17)

아마도 이 신전은 호탕한 노아 왕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꾸볐던 신전이었을 것이다.²⁾ 전술한 모든 신전의 이야기는 니파이가 건립한 신전을 두고 한 것일 것이다.

주전 124년경 백성들은 다시 베냐민 왕의 그 유명했던 마지막 이야기³⁾를 듣기 위해서 제이라헤클라 땅에 있는 신전으로 모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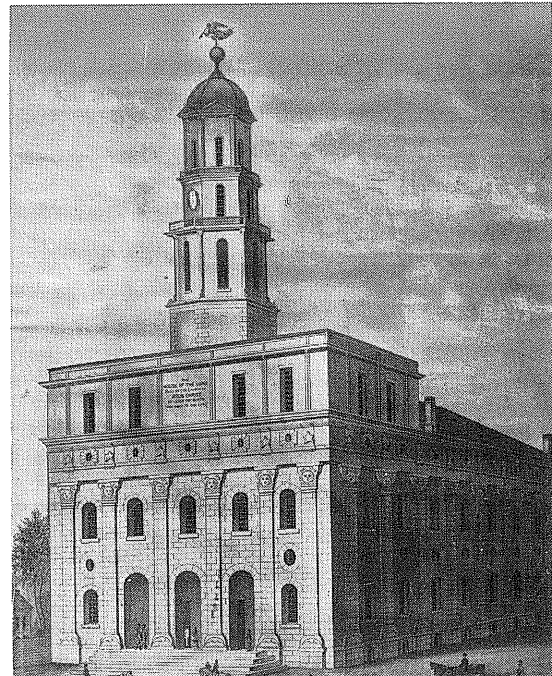
물문경에는 “바운티풀 땅”에 제 삼의 신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이곳에 니파이 백성

들이 모여 들어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⁴⁾ 니파이 백성들은 이외에도 다른 신전을 가졌을지도 모른다.⁵⁾

구약을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을 짓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이 탈메지 박사는 “저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지성소를 짓는데 남 다른 백성”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우상 숭배자들도 역시 신전을 지었으나 이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예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젖은 애굽의 통치를 벗어난 후” 여호와께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임하사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키시고 이미 저들이 왕과 주로 받아들인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회당을 준비하도록” 명하였다.⁷⁾ 여호와는 신전의 세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날 날이 지시해 주셨고 백성들은 이 지시에 따라

나부 신전은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 헌납한 두 번째 신전이였다.



1. 야곱서 17:2, 11
2. 모사이야 11:10, 11
3. 모사이야 1:18, 2:1, 5-7
4. 니삼 11:1-11
5. 엘마 16:13, 23:2, 26:29
6. 제임스 이 탈메지 저 주님의 집(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12) 2페이지.
7. 같은 책 2-3페이지.

가장 훌륭한 재료를 사용하여 언약의 궤를 간직하는 주의 집을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십년을 방황한 다음 마침내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되자 “저들이 운반하던” 장막은 “실로 땅에 자리 잡았고 이곳으로 백성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 받고자 하였다.”⁸⁾

“이스라엘의 둘째번 왕 다윗은 주님의 집을 짓기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곳이 천막에 불과한데 왕인 자기가 궁전의 왕실에 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였다.⁹⁾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역대상 28:3)

그러나 다윗은 행동하였다. 그는 재료를 모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신전을 지었다.

이 호화스런 신전은 삼십 사년 동안이나 그 웅좌를 지켰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호의 팔을 거두시었던 것이다...”¹⁰⁾ 애굽인들이 이 전을 헐었고 유대 왕 아하스가 이를 노략질하였고 느브갓네살이 주전 600년경 마침내 이를 불태웠다.

이스라엘은 간악해졌다. 지파는 분리되었다.

“12지파중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1년경 앗수르의 억압을 받게 되었다.” 나머지 두 지파 곧 유대 왕국은 칠십년 동안이나 바빌론에 예속되었었다.

“그러다가 싸이러스와 다이러스의 우호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과 부합되는 신전을 지었으니...회복된 이 신전은 역사에 예루바벨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신전은 주전 515년에 완성되었다.

“이 신전은 호화로우거나 장치에 있어서 솔로몬 신전에 비견이 되지 못하였으나 그때의 백성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은 것이었으

므로 주가 이를 장막과 솔로몬의 신전을 열납하시듯 열납하시었다.”¹¹⁾

몰락의 다섯 세기가 흐른 뒤 그러니까 주전 십 육년전쯤, 유대의 왕 헤롯에 의하여 이 신전은 개축되었다. 이 신전이 비록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기는 했으나 구세주의 지상 생활의 많은 일화를 담고 있다. 주후 70년 이 신전은 주가 예언하신 대로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와같이 신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 같은 표시이었으면서도 기록에는 헤롯 왕의 신전이 파괴된 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이 1830년에 있을 때까지 1760년간을 니파이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신전을 지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신전에 관하여 신전의 목적과 그 안에서 행하는 사업 등에 관한 지식이 이제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까닭에 질문이 야기되곤 했다. 예언자 요셉에게는 신전에 관한 지식이 언제 전달되었을까? 신전에 관한 지식을 그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에게서 얻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물론 그는 이 지식을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전 건립 사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업 가운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신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만이 지을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사람은 짓지 못할 것이다. 전세의 영원하고도 위대한 원리, 영원한 결혼, 부활, 승영,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사실과 기타 위대한 복음의 원리가 신전 사업에 집약된다. 신전에서 말일성도들은 수많은 것을 깨닫는다.

요셉 스미스 이세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수많은 확증 중에도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가 교회를 조직한 일년 남짓한 후부터 주님으로부터 신전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교성 36:8).

1831년 7월 초 주는 미주리주 인데펜덴스에서 “.....시온의 도시를 세울 장소니라. 신전을 세울 지점은 서쪽으로 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느니라.”(교성 57:2-3)고

8. 같은 책 5페이지.

9. 같은 책 6페이지.

10. 같은 책 8페이지.

11. 같은 책 9-11페이지.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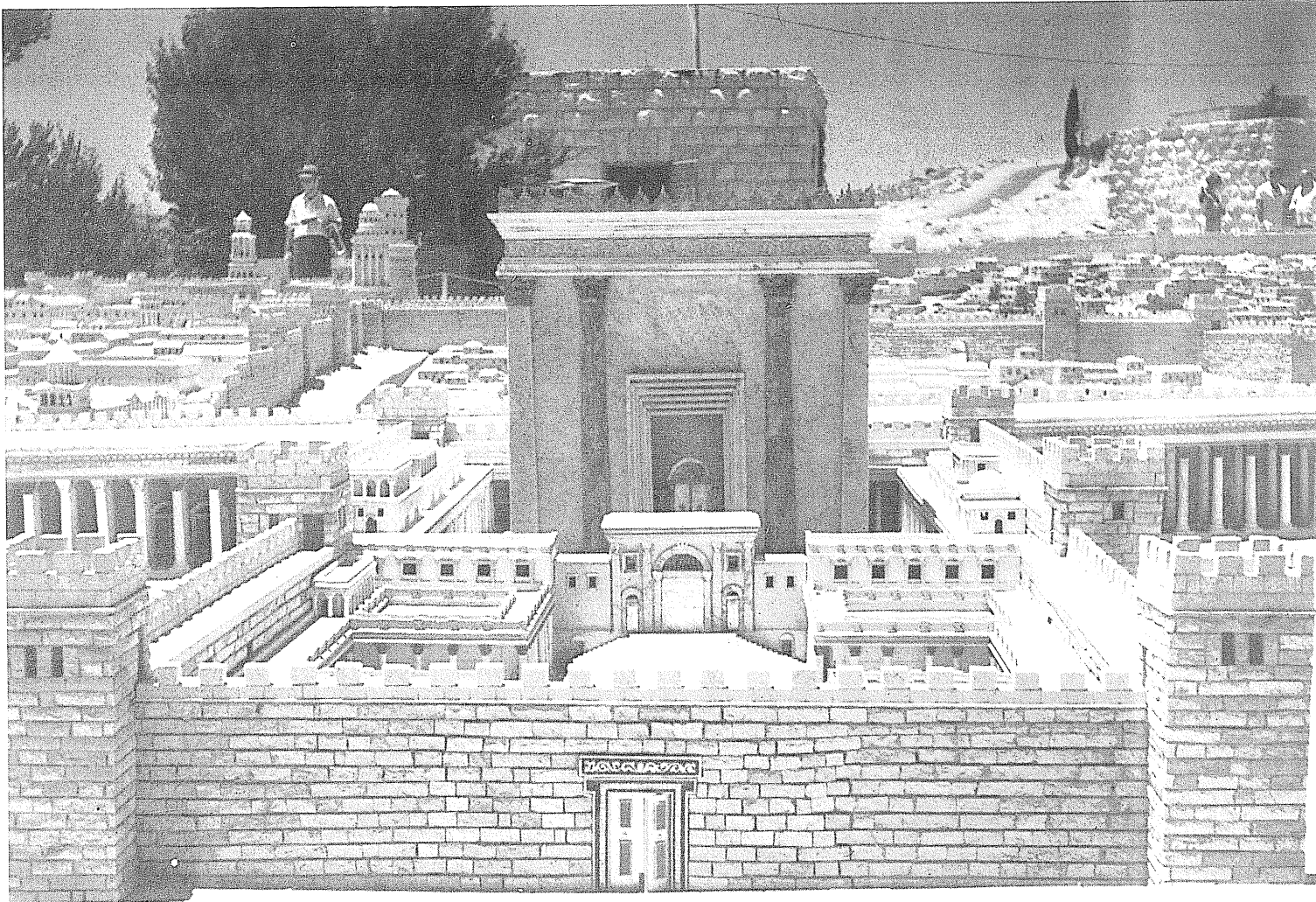
시온의 건설과 신전 건립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은 그 초기에 참으로 대단하였다. 그 관심의 도는 성도들의 집합하겠다는 정신의 자세로 나타 났다. 집합의 정신과 신전 건립간의 상관 관계에 관하여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 하셨다. 그는 구세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 23 : 37)라고 전한 다음 “이 세상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을 모으려는 목적이 무엇이오?”

라고 그는 물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자신은 이렇게 해명한다.

“주님께 전을 지어드리는 주된 목적은 그곳에서 주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집의 의식과 왕국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의식 가운데는 꼭 이를 위하여 지어진 곳에서만 정 리되는 것이 있어서 전을 짓는 것입니다.

“신권의 법과 원리가 세상의 어느 시대에도 백성들간에 역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천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정해진 의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전의 의식으로써 변경되거나 개조될 수 없



두번째 성전 (헤롯의 성전이라 부름)의 대형 모형이 예루살렘의 홀리랜드 호텔에서 전시되어 있다.

읍니다. 만민이 다 한 가지로 같은 원리로서 구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일에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데 모으시고 의식과 엔다우먼트와 씻음과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주의 집을 짓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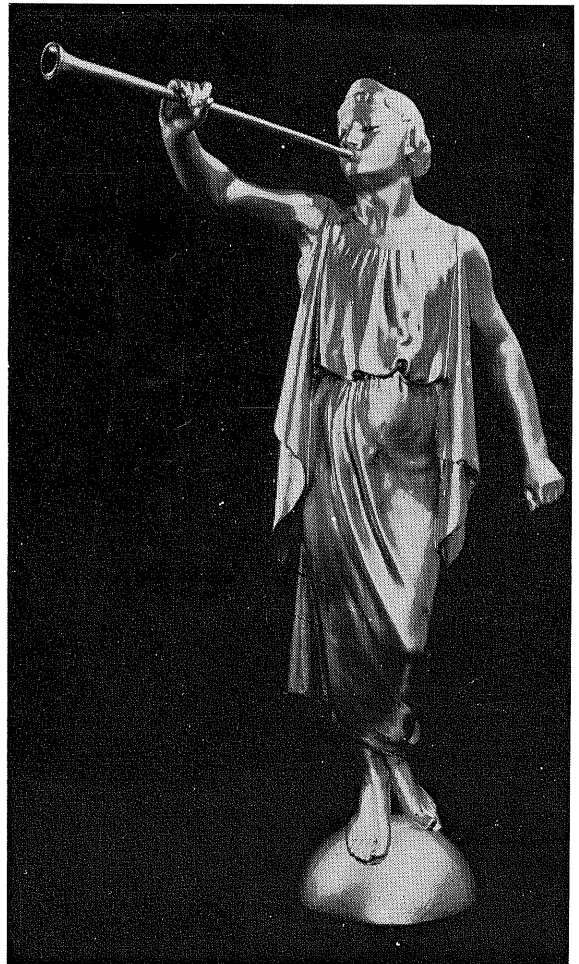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신권의 온전하심을 얻으려 한다면 마땅히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대로 얻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방법이란 온갖 계명을 다 지키고 주님의 집의 모든 의식을 다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인이 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왕국의 온전한 의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모든 온전한 의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영광도 제한되거나 모두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¹²⁾

교회가 완전한 조직을 갖추려면 반드시 신전이 있어야 한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로서만은 온전한 조직이 못된다. 따라서 신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조직이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며 신전에 신권의 의식이 집행되는 처소가 마련될 것이다.”¹³⁾

1844년 4월 8일 나부에서 있었던 교회 대회에서 예언자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미국 전역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교회와 지부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시온의 스테이크로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스톤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는 스테이크를 세우라고 하셨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선언이었으며 나는 이를 끝까지 지켰다. 나는 또한 이 사업이 씻음과 기름 부음과 엔다우먼트가 이곳에서 행해진 다음에 연결되도록 계획했다.”¹⁴⁾

신전은 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위한 위대한 요새다. 악마는 신전에 대항한다. 우리가 첫번 신전을 세우고 난 다음 악마의 선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 성도들은 커틀랜드와 나부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신전에서 주님의 영광 전세가 넘치도록 주어지지 않았던들 교회는 그 후로 명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신전이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왕국의 영광과 주의 전의 의식을 계시하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집”(교회사 제5권 123 페이지)일 뿐만 아니라 신전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승영에 필요한 보다 높은 신권의 의식을 허가 받는 곳이다.

우리는 필요한 복음의 의식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안다. 첫째 침례, 둘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이러한 의식은 신전 밖에서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다. 신권을 전달하는 안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다 높은 복음의 의식 즉 엔다우먼트라던가 인봉 의식은 신전에서만 집행된다. 예언자 요셉은 사람이 이러한 의식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경우 승영) 받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신전으로 가며 살아있는 모든 친척을 이곳에 모아 인봉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멸망의 천사가 임하는 날에 대비하기를 바란다.

“자주 사람들은 ‘이 모든 의식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라고 묻는다. 이

12. 요셉 스미스 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

13. 에이치 로버트 2판 5: 423-24 같은 책 4: 603

14. 같은 책 6: 319

에 대하여 나는, ‘아니,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오’라고 대답한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리라’ ...누구든지 제일 높은 집으로 올림을 받는 자는 해의 영광의 법을 지켜야 하며 온전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¹⁵⁾

신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남편과 조상에게 인봉되며 우리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인봉된다.

지도자들은 가정이 말일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인봉이 없다면 앞으로 올 세상에 가족의 유대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영원한 가정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처량하라! 집이 없을진대 하늘의 행복도 허사이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하늘이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 나와 나의 아내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된 솔트레이크 신전은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문이다.

신전은 옛날 신전이 없어서 의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들의 조상을 위해서도 하늘의 문이 된다.

예수는 니고메모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 3:5).

이 성경의 말씀은 배도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 소위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자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구원의 처소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참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다른 구원의 복음의 의식까지도 침례와 함께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주님께서 신전 안에서 온갖 복음의 의식을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까닭에 그러한 열려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세상에 근대식 신전이

세워지고 신권 계보 위원회의 지도 아래 여러 전문가와 유능한 조력자의 협조 아래 계보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아!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충실한 자녀들의 기쁨이 어떠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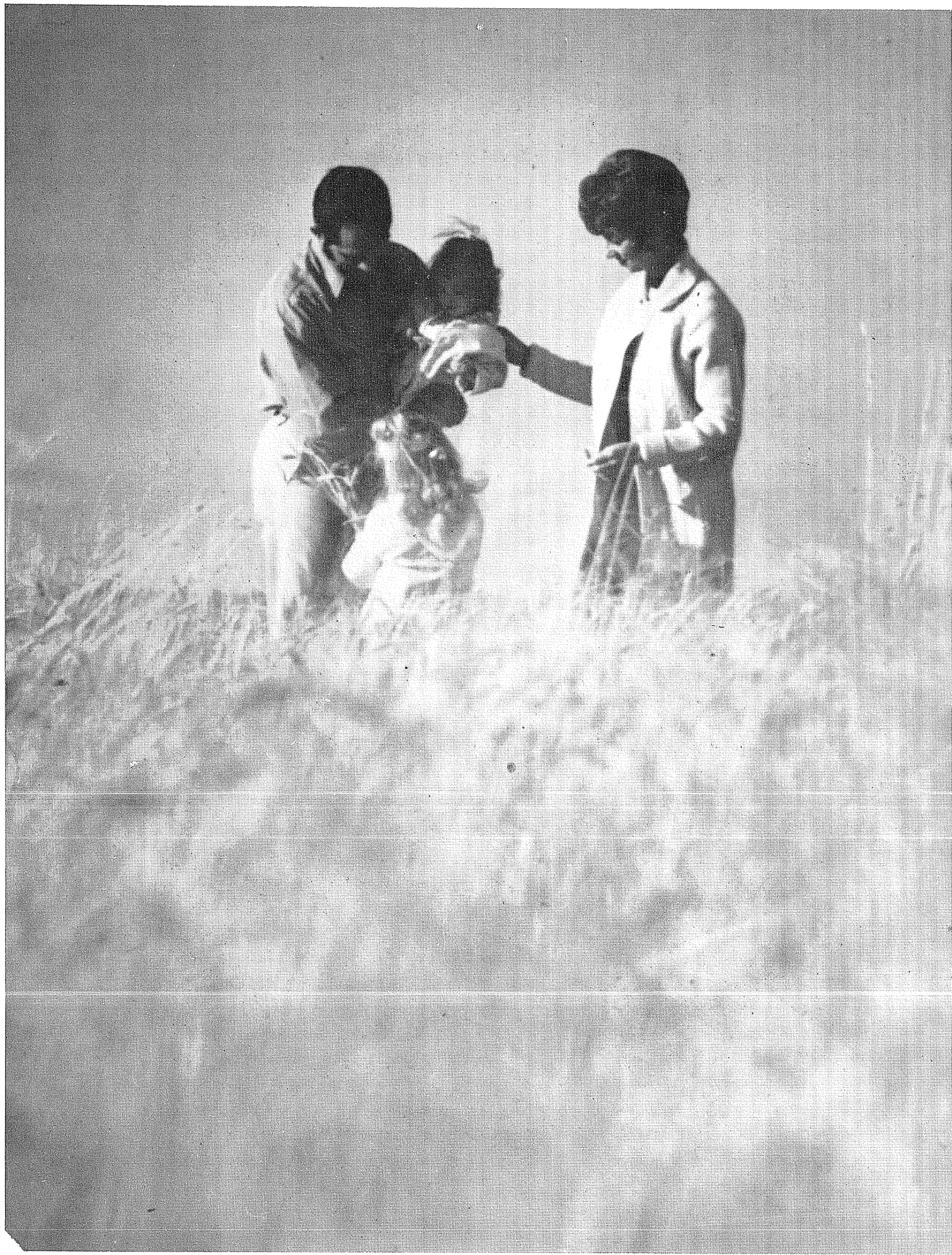
신전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신전의 방편에 관하여 생각할 때면 야곱의 교훈이 연상된다. 여러분은 그 창세기 이십 팔장,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기사를 기억할 것이다. 야곱이 벨세바로부터 하란으로 여행할 때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그는 하나님이 서 계신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 땅에서 있었다. 그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야곱은 그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님의 축복—하늘에 들어가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축복—얻기로 한 주님과 성약을 기억하였다.

그가 그곳에서 주를 만나 주와 성약을 나누었으므로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베드—엘로힘이라는 말로써 해석하면 “주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창세기 28:17) 그는 이에 관하여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창세기 28:17).

야곱은 하늘 문에 들어선 것만이 아니라 주와 나눈 온갖 성약을 다 지켜 하늘로의 길을 다 간 것이다. 그의 주가 되시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삭이나 야곱도 명령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음과 같으니라, 저들이 명령을 받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에 따라 저희 승영에 들어가 보좌에 앉았나니 천사가 아니라 신이니라”(교성 132:37).

신전은 우리들에게 베델이 야곱에게 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아니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신전은 미처 혜택이 없었던 이미 죽은 우리의 친족에게도 하늘의 문이 되어 준다. 우리는 신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모두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15. 같은 책 6:184



가족과 영원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 얼마전 나는 남편과 갈라 선 다음 아이 마저 잃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어떤 자매의 면담 요청을 받고 면담을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꼭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다음 그녀는 홀로 아들과 자기의 생계에 책임을 맡아야 했고 그렇게 일에 시달리던 중에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전 마침내 그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아이의 머리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그 자매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거의 애원하는 태도로 물었던 것입니다.

“엄마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거죠 그렇지요? 나를 잊어버릴 순 없을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 애원하던 그 어린 것의 소리에 우리는 잊혀지지 않겠다는 우리 모두의 몸부림을 듣는듯 합니다.

내가 뉴우 잉글랜드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나는 교회에 들어온 후에 바로 다섯 살짜리 무남독녀를 자동차 사고로 잃은 어느 애기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도 몇 주 동안 마음을 다친 이 애기 어머니는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음으로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고통을 겪으며 그녀는 두 가지 질문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첫째,

“제가 꼭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모두 암흑으로 떨어집니까? 저는 저의 어린 것이 어둠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둘째번 질문은,

“그 아이는 혼자 있습니까? 제발 저의 어린 것이 외톨로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한다면 그건 정말 못견딜 노릇입니다.”

그 아이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니 나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지식을 전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가정의 결속은 교회의 사명 중에서도 으뜸되는 사명입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 방편을 계시로 전해 주셨습니다. 신권 계보 사업은 신전 의식의 길을 마련해 주며 이 의식은 교회의 영원한 기본 조직—가정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는 계시를 믿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느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9조)

많은 말일성도들이 특히 이 9조의 끝 구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은 모두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에 관하여 의논했으면 합니다.

마티아스 에프 카울리가 쓴 재미있는 교회 서적 윌포드 우드럽의 자서전에 계시를 중심이 되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교회 대관장의 자세한 역사와 시대상은 대관장의 상세한 일기로 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1894년 4월 5일 우드럽 대관장님은 그의 일기에서

“나는 자녀 입양과 엔다우먼트 문제로 형제들과 만나 모임을 가졌고 윌포드 우드럽은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공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내용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894년 4월 대회에서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신(베드로전서 1:21 참조) 주님의 권고에 좇으려 하며 나는 그 감동을 얻고자 말일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말일성도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지큐우 캐논 형제께 내가 말씀 드리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교리와 성약에서 읽어 드리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장단 제일 보좌 조지 큐우 캐논은 가족의 결속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드럽 대관장님은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교리와 성약 128편을 가르킴)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일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권세와 권능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거룩한 신권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땅 위에 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수행치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절단 당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달리 백성을 세우사 이 일을 수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뜻에 불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단 하루라도 내가 이 직분을 말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계시가 없다는 이미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관장만이 계시를 받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대관장단의 보좌와 십이사도 그리고 자기의 부름에 충실한 모든 거룩한 신권 소유자가 비록 계시를 받아 교회와 전체를 이끌 수는 없더라도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은 신권의 영역에 예속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얻은 빛과 지식에 좇아(자녀 입양과 엔다우먼트를 가르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니 곧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인봉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인봉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관장님은 계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업을 간결하게 회중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말일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계보 사업에 전념하며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에 인봉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녀가 모두 조상에게 인봉되게 하되 그 근거가 연결되는 한 끝까지

1. 카울리 마티아스 에프 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1858년 탄생 1940년 별세.

사업을 연결하기 바랍니다.”

(작은 글씨는 추가된 것임)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내게 이 원리를 모든 이스라엘에 전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계시해 주셨으며 그 계시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 백성들에게 사실을 전합니다. 나는 이 신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대로 이행하며 이미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것 위에 새로운 일을 더하여 발전해 가자고 전하는 바입니다. 나와 나의 보좌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였고 일단 서로 동의한 다음에는 이 자리에 모였던 사도들에게도 전했습니다.주님은 사도 모두에게 계시해 주셨으며—만일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허락한다면 이점에 대해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추가 저들에게 말씀하셨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원리보다 더 조화된 원리를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옳다고 느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 것입니다.”(1894년 5월 19일 데저렛 뉴스)

1894년 11월 13일, 솔트 레이크 시에 있는 역사편찬 위원회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대관장단 전원이 모였습니다 :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제일 보좌인 조지 큐우 캐논 제이 보좌 요셉 에프 스미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프랭클린 디어 리차드 그 외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전원이 모인 그 자리에서 유타 계보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 모임은 가족의 결속과 종교적인 목적 기타 교육과 인격 도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가족의 결속을 돕는 또 다른 조직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선교부, 와드, 지부 및 지방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은 신전 관리자의 감리를 받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이 땅에서의 요구를 위한 일시적인 조직이며 영원한 조직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조직될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크의 경우 그 관리 지역을 변경하기도 하고 규모나 형태를 바꾸기도 하며 구성 역원을 완전히 새로 개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신권 권능의 행사를 돕는 방편입니다. 스테이크와 와드를 다스리는 역원이 부름을 받습니다만 이들의 직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하루만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임무는 사람들의 어깨에 위촉됩니다.

반면에 가정은 영원한 조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정이 소속 와드나 스테이크를 옮긴다 하더라도 가정으로의 조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유대는 이 세상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같을 것입니다. 신전에서 신권의 주재로 이루어진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의식을 기초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부부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이들은 정신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책임은 참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책임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준비되고 정리되는 거룩한 인성의 힘은 최후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목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단계에서 승화됩니다.

가정에서의 위치는, 즉 부모의 위치는 일시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관리 역원은 자주 바뀔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끔 그런 아버지는 바뀌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졌습니까? 감독은 주일학교의 회장은 해임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해임시키지 못합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라도 그런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총관리 역원은 그런 권리를 가졌을까요? 나는 내게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의 직위를 해제 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버지의 부름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영원한 성약 가운데 영원하며 해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범법이 있을 때 해임이 있기도 합니다. 예언자인 대관장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이 가족의 결속의 띠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결속의 분단이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개개인이 성약을 어기고 범법하고 합당하지 않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결속의 띠와 결혼 성약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여 결혼 성약으로 이루어진 결속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어리석음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세대가 거룩하다고 일컬어 온 인간의 결혼 성약이 한낱 헛된 것이라고 반박 당하는 위험한 시대를 살

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영이 거하는, 절차가 되었던 기록한 삶의 과정은 세상적인 것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죽어야 할 몸인 데도 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때로는 돌발적인 사고로, 또는 이제는 너무도 평범화된 인공 유산의 조처로,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환경의 여건으로 해서 영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상에서는 인류의 향상을 위한 조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심에서 취해진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교리와 성약 128편을 읽고 또 읽어 보면 주님의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를 위한 칙례에 관하여만 언급하지 아니하고 삶을 위한 죽은 자의 대리 칙례를 강조하신 점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가를 아니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결국은 같은 원리가 양 쪽으로 연결됩니다.

계보 사업을 통한 이 가족의 결봉과 신전에서의 인봉 의식은 가족이 모두 살아 있을 때 그 유대를 엮어내고 구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같이 산 자와 죽은 자의 결봉을 강조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가 일찌기 교회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의 유대를 돕고 가족의 결속을 돕는 두 가지 프로그램 즉 가정의 밤과 가정 복음 교육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의 유대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로 묶어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계보 활동과 신전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증대하고도 위대한 많은 것을 계시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약개조 9조 참조)

우리가 가족을 구하려면 구함을 받을만한 근거가 될 일을 빠짐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신권 계보 사업과 같이 가족을 가깝게 결속시키는 일에 관하여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에

엘리야가 온다는 이야기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이야기가 주전 400년에 말라기에 의하여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오클랜드 신전에서 부대관장이신 해롤드 비이리께서 전하신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여러분이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전 대관장 요셉 에프 스미스와 그의 보좌들은 누구든지 자녀를 일주에 한번씩 모아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러한 가정은 파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이 땅에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장막 저편으로 떠난 후라야 비로소 부모가 그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하는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길을 자녀를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죽었을 때 과연 가족을 결봉한다는 제도가 여러분의 결봉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을 살아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켜야 할 시간이며 이로써 죽음을 초월하여 지속될 부모 자식간의 유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절실한 생활의 문제요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신권 계보 사업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를 띄고 움직여지고 있으며 강조되고 있고 또 모든 성도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전 사업과 스테이크 및 와드의 사업 이행은 우드렐 대관장님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현대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의 결봉에 관하여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큰 열의를 갖고 있으며 가족의 결봉을 통하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계보 사업을 통하여 모든 세대의 가족이 하나로 뭉쳐져서 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계보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

하워드 더블류 헌터 십이사도 정원회

● 여러분이 갑자기 엘리야의 영으로 불붙게 되고 신전 의식과 계보 연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고 또 강조되기는 했지만 아마 수천 성도는 위의 질문에 모릅시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계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갖게 되는 의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지?”와 “언제 시작하면 될까?”의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도 많겠지만 대다수의 교회 회원에게는 이 점에 관한 안내와 방향 제시가 아직도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의욕과 확신은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몇 마디 이야기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근거를 갖게 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확신과 요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이 해야 할 일 중의 첫번째 일은 자기 가정과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대로 다 수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누구의 후손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날자, 이름, 장소 등의 기본 자료는 여러분이 개인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어느 가정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족 기록서에 기재된 이러한 자료로서 여러분이 어느 가정의 자녀 혹은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너무도 분명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이 조치는 제일 처음의 중요한 단계로서 조상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완성되어 필요한 모든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서 쉽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된 다음에는 조상 쪽으로 일대를 거슬러 올라가 같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했다면 일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분들의 자녀란에 기재됩니다. 또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조모 조부가 되겠는데 어머니 쪽과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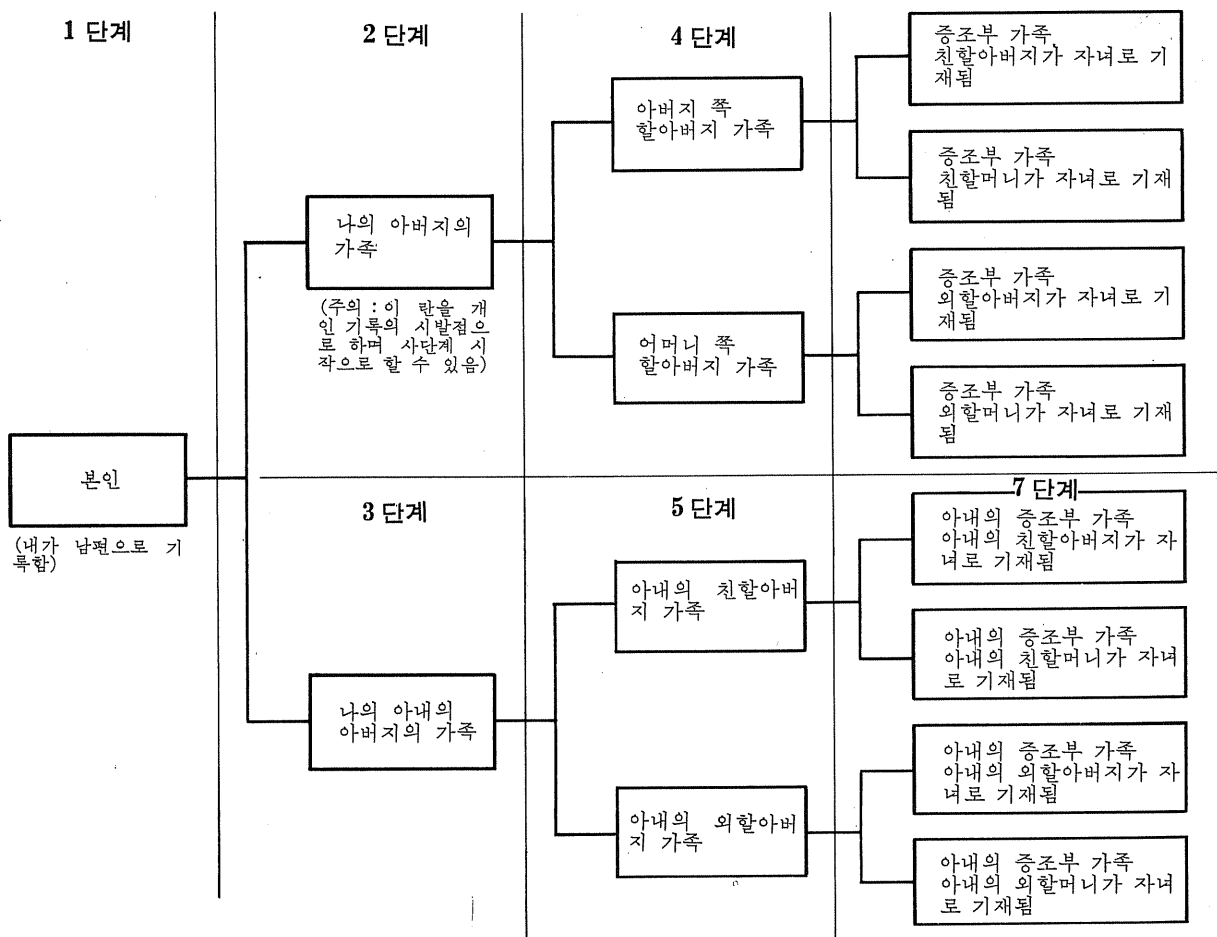
쪽의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쌍의 증조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장차 먼밀한 계보 연구를 가능하게 할 이러한 기초 작업은 교회가 회원 개개인에게 요청하는 맨 처음 단계의 일입니다. 이러한 가족 기록서는 각 지부나 와드의 장로 모임 혹은 대제사 구룹 지도자에게 제출되며 이들은 이 서류를 교회 네 세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대제사 구룹 지도자는 와드 기록 조사인에게 서류를 검토하게 하며 착오가 있는 경우 대제사 구룹 지도자는 기록 정정 요령을 적어 기록서를 작성자에게 반송합니다. 이와같이 해서 정정 확인된 기록서는 대제사 구룹 지도자에 의해서 계보 위원회에 보내져 처리됩니다.

가족 기록서 부분 하나는 여러분이 보관하며 기억의 책(the book of remembrance)에 함께 삽입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계통도를 만드는데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일은 중요한 계보 사업의 시작이며 여러분이 별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드의 대제사 구룹 지도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와드 감독의 고문이 됩니

사대 프로그램



다. 그는 와드 회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드 감독은 정기적으로 신권 계보반을 가져 교회 회원들이 가족 승영에 관한 기초 지식을 수시로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계보반의 운영을 실습을 위주로 하게 하여 회원들이 이곳에서 계보 프로그램의 기초 작업과 계보 연구를 결들여 하도록 합니다.

이 반에서 사용될 책자와 교재는 이미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드에는 신권 소유자를 위한 신권 계보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보의 기초 안내서로서 가족 승영을 위한 계속적인 신권 프로그램이

란 책자도 있습니다. 이 책은 와드 내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안내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 위원회에서는 기록 제출 교재를 출판했으며 이 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회에 이름을 전달하여 신전 의식이 실제로 이행되게 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자는 유료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적은 참으로 감동을 줄만한 것으로 플트레이크 시에는 무려 750,000의 마이크로 필립 세트와 계보 참고 재료가 되는 약 100,000권의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보 연구와 신전 사업은 모든

회원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의 신권 계보 프로그램은 이 계보 사업을 우리가 게을러서 이행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자들은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저들을 위한 일을 대행하므로서 영의 세계의 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 사업의 열쇠는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져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세는 무덤의 띠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사랑의 수고에서 커다란 기쁨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



친구가 친구에게

마크 이 피터슨
십이사도 정원회

친애하는 토미,

● 방금 네가 이달 네 생일에 칠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칠포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의 네 생애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우리가 칠포를 받는 여덟 살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가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는단다.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꼭 칠포를 받아야 한다.

칠포가 우리 교회에서만 관습은 아니다. 주가 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할 뿐이다. 칠포의 연조는 복음의 연조만큼 오래다. 아담도 너처럼 칠포로서의 칠포를 받았다. 그때로부터 수백만 사람이 칠포를 받은 것이란다. 우리에게 칠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는 칠포를 아담에게 주셨으며 그때 이후로 이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칠포를 받으사 모든 사람들에게 여덟살이 되면 칠포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너는 왜 우리가 칠포로서의 칠포를 받는지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 칠포의 의식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머리 위에 물 몇 방울을 뿌리는 것으로 칠포 의식을 행한다고 믿고 있다.

칠포로서의 칠포만이 유일한 바른 방법이며 참 뜻을 갖는다. 너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다. 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남자들과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이르키신 사실도 배웠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 인간이 많은 축복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회개를 전제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시게 하셨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칠포를 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칠포를 통한 죄 사함을 얻는다.

그런데 왜 물에 잠겨야 하는 것일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물침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무덤에 묻히는 뜻으로 우리는 물에 잠기고 그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된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하여 우리는 주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종교적인 새 생명으로서 칠포의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해하듯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복음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칠포로서의 칠포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또 칠포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해주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모두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설 것이며 이 모든 구원의 길을 가능하게 하신 구세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러니 토미, 너의 칠포를 감사하고 이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회원이 되었음을 알아라, 주는 오늘부터 네가 항상 주를 기억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시며(교성20 : 77 참조) 그리하여 언젠가는 네가 주를 만나 그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단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네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충실한 너의,

● 프린스의 검붉은 색의 털이 은빛처럼 반짝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은 지혜롭게 보였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도 엿보였다. 팀은 이 독일산 세파트가 늙은 래그스가 하던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팀은 두터운 Mackinaw를 입고 그 위에 Slicker를 걸쳤다.

“너의 역량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야” 그는 프린스에게 말했다 “가서 제 우리도 못 찾아 들어 오는 그 미련한 암소들을 몰아 오자”

늙은 래그스는 부엌 화덕 뒤에서 팀을 넘겨다 보다가 팀 곁으로 다가와서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다.

“이번에는 너는 안 가는거다” 팀은 나이가 든 늙은 개에게 일렀다. “네가 나가면 말야 너는 프린스가 도대체 일을 배울만한 기회를 주지 않는단말야 프린스도 일을 배워야 하거든”

프린스가 농장으로 온 이래 팀은 래그스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보였다. 이제 그는 독일산 세파트 프린스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헛간에 가보니 바로 뒤에 래그스가 따라오고 있었다. 래그스가 이미 옛날에 문을 열고 닫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팀은 깜박 잊었던 것이다.

“넌 안 데려간다고 그랬잖아!” 팀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넌 이제 필요없어, 참 넌 셈도 많구나”

그런데 팀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아주 정다운 소리로 장난기도 보여 가면서 래그스를 불렀다. 래그스는 잠시 눈치를 보며 멈칫거리다가 앞으로 달려와 팀의 얼굴을 핥았다.

“자 그만 뒤!” 팀은 짜증스럽게 그를 제지했다. 그는 래그스의 목덜미를 꼭 잡아 어머니가 정원 기구를 넣어두는 광속에 가두었다. 문을 열자마자 래그

늙은 래그스의 구원

에바 그레고리 데 피미엔타



스를 그 속에 밀어 넣고는 재빨리 문을 닫고 그 위에 고리를 걸었다. 광을 지나면서 들창으로 팀이 안을 들여다 보니 래그스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킁킁 소리를 내고 서 있었다. 팀은 잠시 마음이 좋질 않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때는 토요일이었다. 팀은 종일 농장에 혼자 있었다. 부모님은 이른 아침에 병원에 있는 누이를 데리러 텃지 시로 떠나고 안제쳤다.

정오가 바로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초겨울의 햇빛은 벌써 기울어지고 있었다. 오후 세시 썸이었다. 앞에 문은 물방울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팀은 그의 말 트루퍼에 올라 앉아 언덕으로 향하였다.

프린스는 멍칫 멍칫 말의 뒤를 따르면서 따듯한 목장 집을 돌아다 보았다.

“곧 돌아 갈거다” 팀은 격려의 말을 보냈다. “우리 둘이서 소떼를 순식간에 우리에 몰아 넣어야 한다.”

팀은 소가 있을만한 곳을 알것 같았다. 그러나 길은 험한데다가 그 위에 얽은 살얼음이 덮혀 있었다. 트루퍼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팀은 창살 무늬 코트 깃을 세워 몰아치는 찬 바람을 막았다.

“프린스 저기 좀 봐!” 계곡에 이르자 팀이 외쳤다. “저기 소가 있잖아!”

소떼는 계곡 끝에 한데 모여 붙어서 있었다.

“자 내가 찾아냈으니 몰아오는 일은 네가 하렴!” 팀은 독일산 세파트에게 명령했다.

프린스는 트루퍼의 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팀을 올려다 보았다.

“자 가봐” 팀은 참을성있게 권했다 “내가 다시 보여 줄테니까”

팀은 지체하지 않고 계곡 끝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미 여러번 그렇게 했던대로 천천히 아래로 말을 몰았다. 말은 길이 위험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던었다.

거의 계곡에까지 다 내려 가서 트루퍼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팀은 고삐를 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말이 나뉠구러지는 순간 팀은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연결되는 강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일어서려고 했다. 손을 뻗어 말의 고삐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프린스는 놀라서 짖어 댔다. 그는 발버둥질 치는 트루퍼 걸을 맴돌았다. 팀은 힘없이 애를 쓰며 일어서는 트루퍼를 넘겨다 보았다. 말은 천천히 일어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몸을 떨더니 소떼를 가로질러 곧장 목장 집으로 향해 나갔다.

“와! 와!” 팀은 절망의 고함을 질렀다. “프린스! 저 말을 데려와!”

그러나 프린스는 이미 얼어붙은 땅을 달려가는 말을 따르며 말을 데려 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팀은 프린스가 트루퍼를 데려 오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다리가 아파서 신음을 하며 계곡 위로 기어 오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세번째 만에 그는 겨우 둔덕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매운 바람은 사나운 채찍처럼 몰아 닥쳤다. 그는 얼음 덮힌 풀밭에 기진한 채 누워서 그곳에 누워 있어야 할지 집에까지의 먼 길을 가야 할지를 생각했다.

소떼를 그 추운 골짜기에서 끌어내어 젖을 짜야만 했다. 집에까지만 갈 수 있다면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면만. 마침내 그는 집으로 향하는 멀고 긴 피로운 여행을 시작하였다. 큰 길이 온통 얼음에 덮혔으니 부모님은 내일까지는 못 오실 것이다. 목장 집에는 래그스 밖에는 없고 그 늪은 간혀 있는 것이다.

밤이 되자 추위는 더 심해졌다. 팀은 여러번 넘어졌고 그때마다 아주 그곳에 누워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별안간 찬 바람을 타고 개짓는 소리와 말 발굽 소리가 몽롱해진 그의 의식을 깨우며 들려 왔다. 그는 거의 무감각이 된 손을 입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다. 프린스!” 그러나 그것은 프린스가 아니었다.

팀은 그 열망에 찬 기쁨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래그스 였다. 팀은 땅바닥에 주저 앉아 늪은 래



그스가 얼굴을 핥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손을 뻗혀 개의 목을 얼싸안고는 그 부수수한 털 속에 얼굴을 묻었다. 개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울리자 팀은 얼른 개를 놓아 주었다. 개는 팀이 일어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말에 오를 때까지 그 주변을 맴돌았다.

팀이 안전하게 말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계곡 아래로 달려 내려가 소뿔을 물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헛간에 돌아와서 팀은 등에 불을 켜다듬 트루퍼의 안장을 풀었다. 여물을 구유에 넣어주고 나서야 팀은 얼어붙었던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리는 여전히 아팠다. 얼마 후에 래그스가 소뿔을 물아왔다.

소가 모두 우리 안에 들어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자 팀과 래그스는 집으로 향하였다. 팀이 연장 창고 앞을 지날때 그는 들창 유리에 큰 구멍이 뚫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직도 창틀에 붙어있는 유리 조각을 만지다가 래그스가 고통스런 신음 소리를 내던 것을 기억했다.

팀은 무릎을 꿇고 앉아 늙은 개를 가깝게 끌어 당겼다. 그는 덩수룩한 털을 헤치고 살피다가 마침내 흉

하게 찢어진 깊숙한 상처를 발견했다.

팀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는 눈 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가 창문을 부셨구나, 래그스! 트루퍼가 나를 버리고 혼자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넌 유리를 깨고 밖으로 뛰쳐 나왔구나!”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뒷문에는 프린스가 버티고 서서 장난스럽게 팀의 발꿈치를 입으로 쿡쿡 짚었다.

“넌 아직도 멀었어!” 팀은 좀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래그스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 했니……”

팀은 머뭇거리며 창고에 래그스를 가두었던 것을 뒤우쳤다. 그랬는데도 래그스는 팀을 용서하였고 스스로 상처를 입으면서 까지 팀을 구하였던 것이다.

팀은 손을 뻗어 어린 독일산 셰파트를 어루만져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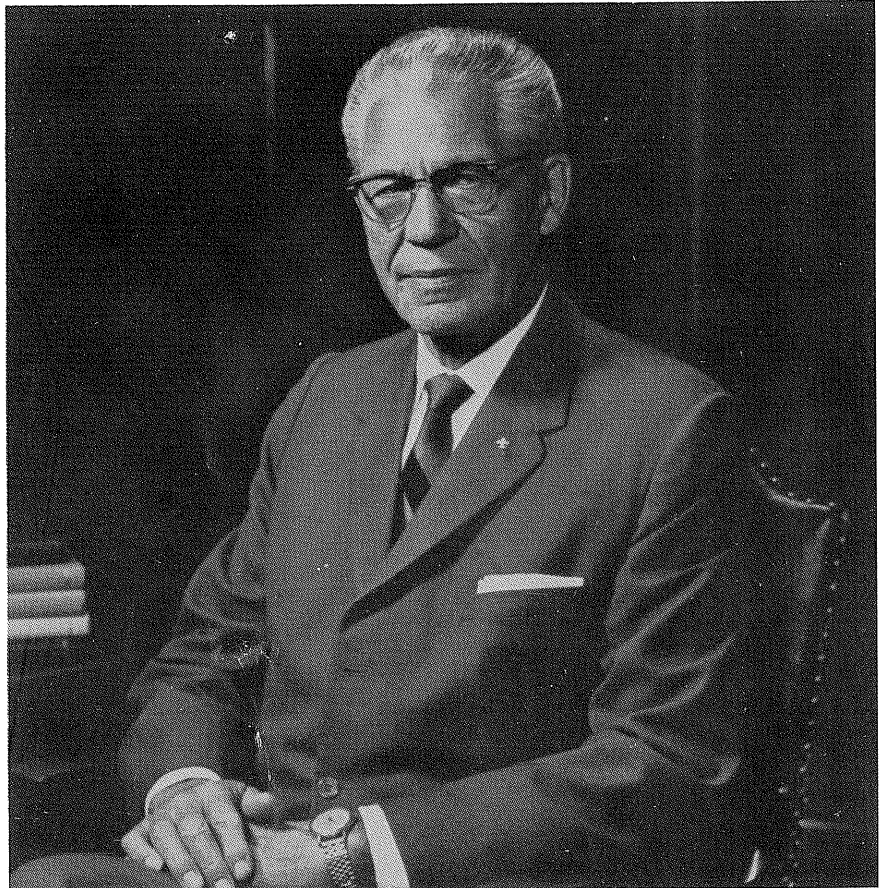
그도 프린스를 용서해야 했던 것이다. 늙은 래그스는 그에게 충성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이다.

“넌 아직 어려” 팀은 프린스에게 말했다. “늙은 래그스는 너를 잘 가르쳐서 좋은 목장 지기를 만들 거야”○



이러한 것을 나는 배웠노라

엔 엘돈 태너
대관장단 제이보좌



● “청결한 청춘은 참으로 아름다워 천사에 가깝도다. 이 청소년은 이곳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고 이 세상을 지낸 다음에도 영원한 기쁨을 갖는도다”(대관장단의 말씀, 1942. 4. 6.)

내가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젊은이들이 위의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라 하겠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영생을 얻도록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 중에 누가 영생을 제쳐놓고 비참함과 지난 행동을 뼈아프게 뉘우치는 참회를 바라겠는가?

평생을 두고 나는 청소년을 위협하는 유혹과 사악함에 대하여 늘 경계하여 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전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함을 느껴 왔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마태 6:33)

이 말씀과 내가 어려서 배워 이해하게 된 복음의 원리로 해서 나는 어렸을 때 나의 친구들을 괴롭혔던 많은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어렸을 때의 친구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복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능히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또 삶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수 있었으나 그릇된 길을 좇았던 자들은 평생을 두고 그 값을 치루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고난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내가 훌륭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가지로 크게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자녀와 손자들, 그리고 훌륭한 사

람과의 유대를 원하는 내가 사귀었던 여러 젊은이에게 높은 이상을 품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어느 때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러 왔다. 누구라도 이러한 결의를 굳게 하지 않는다면 악의 영향력이 강할 때라든지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단호히 선을 택하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나는 소년단 대장으로, 학교 선생으로 기타 여러 교회의 역원으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들 젊은이들을 접견할 기회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저들에게서 사람이 복음의 가르침에 좇아 살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고 더 행복하며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도 주위에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내게 보여준 여러 가지 모범과 사랑 그리고 나의 선한 인생과 장래를 준비하게 한 그분들의 희생과 확신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그분들의 뜻에 따르고 그분들의 권고를 받아 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신다.

여러분의 성공을 당신들의 성공처럼 생각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슬플 때 부모님도 슬프며 여러분이 기쁘면 부모님도 기쁘시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계명에 있는대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는(니파이이서 2:25참조) 사실을 믿어 왔으며 인간이 의를 행할 때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나는 딸들에게 아직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안 일생을 두고 누우침이나 후회로 얼룩지지 않을 기쁨을 만끽하라고 이야기 해 왔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저녁에는 용기를 주셔서 마땅히 할 바를 다한 나의 일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 드립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늘 이와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모두를 아버

지의 자녀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유혹을 이길만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저들을 신뢰한다. 비록 사악함과 유혹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성스럽지만 여러분은 그것에 대비하여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더 면밀한 준비를 했으며 사업이나 지도자의 일에 얽매인 여러분의 윗사람들 보다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은 우리의 장래를 짊어진 우리들의 소망이다. 세계를 개선하고 향상해야 할 책임과 특권은 여러분의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성취하는 일을 볼 수 있을만큼 오래 살았으면 하고 마음으로 바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에베소서 6:11).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의로움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혼란된 이 세상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의 얼굴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행하는 자만이 행복을 얻고 발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허가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



아래 기사는 실화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로저 맥클린과 그의 전우들이 월남 야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 겪은 이야기인 것이다.

● 해가 부드러운 노을을 그리며 떨어지자 나의 딱딱해진 근육으로 따뜻한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빛과 따스함의 기운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면의 빛 아침의 기적을 천천히 되살리게 했다.

대회를 갖는 주일이었다. 부대에 남은 물문이라고는 나와 돈, 트레이너뿐이었다. 마침 근무 대기령이 내려서 나트랑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지를 못했다. 우리가 소속된 부대가 같았기 때문에 아침을 끝내고는 성찬 간증회를 가졌다. 간단한 모임이었다. 둘이서 성찬 축복을 하고 나머지 하나가 성찬을 축복한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하고 엄숙한 모임이었다.

아침 모임이 끝난 다음 트레이너는 Squapon Post로 갔고 돈과 나는



월남의 주일

로저 맥클린



약 한 시간 반동안 부대에서 이곳저곳을 돌보며 우유 가루를 진하게 탄 음료를 마셨다. 그것은 별로 맛이 없는 것이었지만 월남 근무가 날을 더할 수록 맛이 들었다. 그리고는 돈과 나는 MACV(월남 육군 지원 사령부)로 가서 월남인이 만 들고 있는 집으로 가져갈 폰초 의투를 보기로 했다.

트래시도 하나 원할 것이라는 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야전용 앰블런스를 몰고 트래시를 데리러 활주로로 갔다. 돈이 구조대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내 트래시가 방금 도착한 부상자를 돕기 위해서 응급실로 갔다는 소식을 갖고 나왔다.

우리는 가서 그를 불러야 옳은지 부르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응급실에 가면 잡혀서 일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번 날에 비록 잡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트래시를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응급실

건물로 갔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짜증을 내지 않기로 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밖에서의 뜨거운 햇빛으로 노근해진 몸을 당장에 회복시켜 줄 것 같은 찬 바람의 에어컨 파도가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선채로 온도가 아주 내려가서 땀이 얼어 붙으면 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농담을 주고 받았다.

뒷 방으로 연결된 복도로 마침 들 어선 육군 상사가 정중하게 용건을 물어왔다. 트래시를 면회하고 싶다고 돈이 대답했다. 그는 엄지 손가락으로 어깨 위를 가르키며 트래시가 “뒷방”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트래시가 일하고 있는 뒷방으로 갔다. 확 끼치는 소독약의 냄새가 찬 방 공기를 더 싸늘하게 느끼게 했다.

트래시는 차가운 철제 침대에 거의 나신이 되어 누어있는 어느 사람 앞에서 있었다. 그밖에도 시체

여덟이 철제 테이블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어떤 시체는 아직도 흠뻑은 군복을 입은 채로였고 피투성이인 것도 있었다. 그밖에는 모두 벗겨진 채 타올 한장이 덮혀져 있을 뿐이었다. 방안의 조명은 밝았다. 그곳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 외에 그곳을 시체실이라고 느끼게 하는 별다른 것은 없었다.

트래시가 우리를 둘러다 보고는 미소를 보였다. “여-여긴 뭘하러 들 왔지?” 우리는 미소로 답을 하고 우리가 주문하려는 폰초 의투 이야기를 했다. 그는 마치 다이아몬드나 대하듯 폰초 의투에 열을 올리며 자기도 하나 주문해 달라고 했다. 자기는 그곳에 남아서 시체를 씻겨야 한다고.

우리는 그가 이 일을 맡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71야전 병원에서 부상병을 끌어 올리는 일을 돕다가 응급처에서 이 여덟 구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본국에 보낼 준비를 맡겠다고 자진해서 나섰다고 답

해주었다. 마침 그 시체가 소속되었던 부대가 그날 이른 아침에 프레이크 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 선임 하사가 아주 고마워하더라는 이야기도 했다.

우리는 트래시의 뜻을 곧 이해하고 나머지 시체 넷을 함께 정리한 다음 셋이 함께 MACV로 가기로 정했다.

돈과 나는 세제와 걸레를 끌어당기고는 가깝게 있는 시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이들이 죽은 경위와 전쟁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엔 진한 초록색 액체로 몸을 닦고는 맑은 물에 행구어 물기를 닦아 주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다. 셋이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우리는 잠시 동안에 일을 끝냈다.

트래시는 길고 무거운 시체 주머니를 꺼냈다. 우리는 시체 주머니를 각 시체 앞에 하나씩 정렬시켰다. 그 다음엔 시체를 그 안에 넣고 지퍼를 닫지 않은 채 선임 하사관의 검사를 기다렸고 선임 하사관은 일일이 검사를 끝낸 다음 서류를 작성하며 지퍼를 닫았다. 우리가 일을 거의 끝냈을 때 돈은 마지막 검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테이블을 닦았다.

우리가 막 그곳을 떠나려는데 돈이 질문을 해왔다. “어이 포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그 어떤 기능은 작용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

나는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저 나는 머리 카락이 사후에도 한두어 시간은 자란다 고 들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눈에 뜨일 정도는 아니겠지 심장이 멎은 다음에도 두뇌는 몇 분 작용을 한다던가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그런데 왜?”

“그래 그럼 눈물은? 그것이 사후에도 작용하나?”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는걸 그

렇지만 가능할걸 그런데 왜 그런걸 자꾸만 묻지?”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체에 물을 떨어뜨렸나 해서 내가 두 번씩이나 닦아 주었는데도 눈 구석에 자꾸 물기가 생기거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애”

트래시와 나는 벌떡 일어나서 그 시체 앞으로 갔다. 우리는 이제 열여덟살을 갓 넘었을 야윈 그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고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눈에서 시작되어 얼굴을 타고 귀로 흐르는 것을 보았다.

“이 군인은 아직 살아 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트래시와 내가 시체를 옮기는 동안 돈은 날쌔게 앰블런스의 문을 열쇠로 열었다. 우리는 시체를 들것에 담고 사이렌을 울리며 71야전 병원으로 앰블런스를 급히 몰았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도 트래시는 다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나는 그의 인식표를 읽어 이름을 확인했다. 이 군인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름 끝에 작은 글자로 말일성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나는 즉각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기도를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합당한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에 이르러 그대의 생명을 회복해 주기까지 그대가 살아 있기를 그대에게 명하노라”

트래시는 이번에는 나를 쳐다보며 자기의 눈물을 닦으면서 감사의 미소를 보냈고 머리를 숙인 채 자기도 기도를 했다.

사이렌은 멈췄고 우리는 아스팔트 길을 따라 71야전 병원 문으로 들어갔다. 군의들이 달려와 그 군인을 내려서 옮기는 일을 도왔다. 의사들이서 질문을 시작했고 우리는 아는 바 모두들 이야기 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응급실 문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그곳 목재 걸상에 두 시간 이상을 앉아서 기다렸다.

우리가 폰초 외투를 가지러 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의사 한 분이 우리 쪽으로 걸어와 우리 앞에 섰다.

“기다려 주어 고맙소” 그는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 해주겠오,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그 군인은 죽은 몸이었오, 아홉 군데 부상을 입었으니 이미 피를 다 흘려서 흘릴 피조차 없는 몸이었오, 심장도 들리지 않았고 맥도 없었오, 호흡도 끊겼으니 죽은 게 아니겠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오.

“이미 약화되어 움직이지도 반응도 보일 수 없었던 까닭에 그 차거운 시체실 테이블에서 혼자 울었던 거요. 그의 눈물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의 행운이었오. 어차피 얼마 후에는 죽었을테니까 사실은 그를 여러분이 이곳으로 데려온 후에도 곧 죽을 수 있었오. 우리가 피 네 병을 혈관에 놓고 상처를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했대도 그는 회복의 가망이 없었던 건데 그런데 그는 회복되었오.”

의사는 일단 숨을 내 쉬었다. 그리고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 보았다. “나는 8년동안 의사로 개업을 했고 이곳 월남에 온지도 15개월이나 되었오. 그동안에 이런 기적은 처음이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땅을 내려다 보았다 “알겠오, 몇 분전 그 젊은 군인은 나를 쳐다보면서 엷은 미소를 보내며 신권이라고 말하던데 그 의미를 알겠오?”

의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열린 병원 뒷문으로 해서 나가 버렸다.

이제 나는 이렇게 햇빛을 보며 누워 그 의사에게로 가서 신권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누워 쉬며 현대의 기적에 가담했다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

군중속에서

● 인생이라는 학교에 관하여 쓴 글에서 헨리 벤 다야크¹⁾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속에서 살지만 저들의 방식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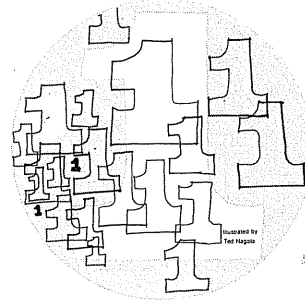
나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훈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며—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며—적어도 그것을 갈망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대중의 물결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때도 있는 것이기에 그 한 예로서 유행의 물결을 쫓는 추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대중의 유행이나 생활을 좇을 때라도 우리는 저들의 방식 그대로를 받아들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위 군중 심리라는 것에 사로 잡혀 미처 철저한 검토를 하기도 전에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히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여럿이 따르거나 행한다고 해서 그릇된 것이 올바른 것으로 둔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혼자서는 하지 않을 일을 군중과 더불어 행하였다고 해서 그 행위의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군중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중의 움직임이란 궁극적으로는 개인개인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야 하거나, 갖지 않아야 할 것을 갖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야 할 순간에는 잠깐 멈추어 서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내가 혼자라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우리 모두의 개개인의 기록을 갖습니다. 우리가 홀로 행하였거나 군중 속에서 행하였거나 간에 우리의 임무와 기억을 갖게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나 그가 올바르게 살 동안만 함께 하고 그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그 걸을 떠나라.”²⁾ 여러분은 군중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중의 생활 그대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너무 많은 날을 한꺼번에

● 나는 가까운 나의 친구가 깊은 슬픔에 쌓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날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¹⁾ 이 말은 사람이 당하는 경우와 입장을 참 잘 묘사했다고



봅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날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너무 많은 일을 결정하려고 하여 오히려 전진을 중단시키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좁은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먼 앞날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결정하려고 할 때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에 쌓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조용한 판단의 능력이 결핍되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한 어떤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으며 우리는 기도로서 이 힘으로부터의 위안과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 질병,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사고를 당한 근심에 쌓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감에 빠진 여러분, 가족과 가정의 문제를 잘 정돈하고 여기 저기 흩어진 임무와 일거리들을 정리한 다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모두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무엇이 가장 중대한가를 가려 내도록 하십시오. 그 모든 짐을 한꺼번에 지려 하거나 모든 결정을 단한번의 피로운 순간에 내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슬픔을 달래 줍니다. 인생은 물같이 흘러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마음을 달래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주변에 적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한꺼번에 모든 짐을 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부딪쳐 일에 손을 대게 될 때까지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으며—평화와 위안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벗의 현명한 권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날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

1. 헤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

2. 1854. 10. 16 일리노이주 페노리아에서 하신 말씀

1. 벤 다야크 헨리, 미국 교육가, 작가 1852—1933.



우리의 젊은이를 준비시킴

해럴드 비이 리 대관장단 제일보좌

● 오늘날 말일성도 교회를 둘러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장래의 말일성도 젊은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장래가 우리들의 젊은이에게 매여있는 만큼 그 관심의 도는 지대합니다. 얼마 안있으면 가족을 관리하고 신권 정원회와 스테이크와 와드 및 보조 조직을 관리해야 할 사람은 젊은이들입니다.

저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거나 행하지 않은 많은 일들은 장차 저들이 저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복음과 교우를 사랑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서한에는 늙은이나 젊은이가 다 함께 받아 들여야 할 적절한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또한 저들에게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한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때 가장 행복할 것임을 전합니다. 물론 교회의 장래는 믿음직스럽습니다만 만일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대화

나 언행 속에 사랑과 순결과 정절로서 믿는 자의 모범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한층 더 밝을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의 중요함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역사 편찬회 사무실에 준비된 다음과 같은 충분한 근거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 총수의 오십 퍼센트 이상의 연령이 이십 오세 미만입니다. 십 이세에서 이십 오세까지의 회원 수가 삼십 육세 이상의 회원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한 증인 십 육세에서 이십 오세까지의 연령의 회원의 수는 교회 총 회원의 수의 이십 삼 퍼센트나 됩니다.

이미 이 통계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가된 막중한 사명을 절감하게 되며 이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장차 어려운 시기에 왕국의 길잡이가 될 것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가 쏟는 것 보다 더 큰 정성을 모아 우리의 젊은이를 준비시켜야 겠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단위가 교회의 내일을 짓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은 날로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 일과 책임을 모르는 아이는 패락을 위한 악마의 계교에 빠져 마약과 성희와 반항 등 온갖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의 밤의 진행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만 권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활용하므로써 약속된 더욱 많은 축복을 받도록 응용하라고 권한다.

결혼과 사랑과 성 등 신전 결혼의 요소에 관하여 배움에 있어서 가정보다 더 훌륭한 학교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의구심을 정리해 주는데 있어서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사랑만이 저들을 풀어주어 저들이 믿고 신뢰하는 자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회와 공과반과 유대가 가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정이 심각할만큼 피해를 입은 젊은이를 위하여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부족함을 메워주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첫째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에 관하

여 말씀하실 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 22 : 40)고 하셨습니다. 그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의 내면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원리가 가르침의 이념이 되게 하여 우리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프로그램을 협의함에 있어서 등대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번도 신뢰를 받지 못한 아이가 남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일이나 책임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사회 전체를 함께 묶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소녀가 털어놓고 세상의 비난이 되고 있고 복음 원리를 가정에서 토론할 수 있으며 그녀의 종교에 대한 논리적인 공박에 태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아들이 부득이 그의 신전 결혼에 참석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 해야 할 경우에 감독이 그 가족에게 단순히 “친절한” 뜻으로 아버지의 신전 결혼 참석을 묵인한다면 과연 그 젊은이가 그 감독을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의 원리를 행함으로 연결하여 경험하기 전에는 그 원리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른의 위선을 보고 어른에게 반기를 든 젊은이들이 늘 어른의 약점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세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저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간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맡김에 있어서 더욱 선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관리하시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젊었을 때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의 부친이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주 젊은이를 택하여 임무를 주셨습니다. 왕성한 젊은 시절로부터 오랜 연구와 단련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봉사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젊은

이는 수고를 하려 하며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준비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광장에 연결될 수 있는 봉사의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바르게 성장하며 특히 가정에서 가정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가족의 사랑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의미있는 회개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 저들의 바른 발전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밖에서 젊은이에게 연결되는 영향이 교회의 표준에서 볼 때 공허한 것일 수도 있고 복음 원리에 상반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만이 아니라 말일성도 가정으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향상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로서는 각 가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 하도록 권고하는 일 이외에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돕는 일은 많은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보조조직에서의 노력과 맞먹는 일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결코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들이 가정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세상에 몇몇 사람들처럼 우리는 젊은이를 모방하는 것으로 저들을 우상처럼 받들지도 않으며 저들의 호감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개성과 자존심을 던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젊은이 모두를 경멸하는 태도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사에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는 이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하며 우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함당치 않게 이용하려는 자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리에 충실하되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신속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젊은이를 포함한 남에게 베풀 준비를 해야 하며 그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왕국에 충실하겠다는 깊은 결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와 사랑으로 임하고 우리의 젊은이가 오늘과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



천부의 은사

조지 듀런트

● 친애하는 매조리, 카메론, 히터, 와렌, 홀리, 레이디, 무엇보다도 너희 모두와 함께 나는 영생을 구하련다. 신전 결혼, 선교 사업, 대학, 전진하자, 목표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일년에 두번씩 사진을 찍자.

짧은 편지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 대어섯 줄의 글속에 한 아버지가 가족에게 전한 훌륭한 간증이 들어 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압축된 이 글의 내용을 기쁘게 음미하였으리라. 글자 하나 하나를 보배롭게 간직했으리라. 사람들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이년 반만에 확인했다.

미 공군 조종사인 이 아버지는 월남 북부에서 작전 수행 중에 적탄에 맞아 추락되었다. 그리고 그가 적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삼십개월 동안에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것이다.

첫번 편지가 왔는지 오개월 후에 두번째 편지가 왔고 그 글에서도 그는 마음의 정을 가족에게 이렇게 전하였다.

“식구들이 모두 잘 있는지 나는 잘 있다. 나는 식구들이 가정의 밤 순서를 계속하고 식량 계획, 독서 계획을 그대로 계속하되

그곳에 노래를 더하고 특히 아침을 들 때 온 가족이 몇 절씩 읽기를 바란다. 마지 난 네가 대학 생활에 흥미를 갖기를 바란다. 어린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예술, 음악 감상 그리고 가사에 관한것과 개인 경제에 흥미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제이”

여기 글자 하나하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입장의 아버지가 그의 가족과 교통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다. 그는 가족에게 가정의 밤을 계속하라고 권했다. 그는 자녀가 어릴 때 받아야 할 도우에 관한 요소를 확인한 것이다.

여러분의 아들이 방금 성인이 되었다고 머리속에 그려 보시라. 책임감이 있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가졌으며 덕을 사랑하고, 회복된 기록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가졌고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의 사랑을 받는 아들.

여러분은 그러한 아들이나 딸을 갖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은 그러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기쁘게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여러분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허가된 시간은 길지가 않다. 금방 품안에 안긴 갓난 아이인가 싶은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성인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자녀와 함께하거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 안될 것이다.

자녀의 장래에 꿈을 거는 부모는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천부의 은사라는 사실을 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대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소망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부모는 가정의 밤을 생활의 중요한 순서로 삼고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가정의 밤 순서가 이미 과중한 생활의 짐에 공연한 부담을 더할 뿐인가? 자기 자녀를 가르칠 만큼 지식이나 영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장도 있는가? 이미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녀로부터 불평이나 반대를 받고 낙



담하게 된 사람도 있는지?

그러한 부모에게 우리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절대로 부담이 될 수는 없으며 가장이 반드시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반발을 해야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다.

가정의 밤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재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목표로 설정한 것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것은 삭제해 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의 일” 하는 것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짐은 나누어 짊어질 때 가벼워진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인도하고 온 가족이 협력하므로 가정의 밤을 갖는 짐은 가벼워질 것이고 받는 축복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은 도무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 둘에게 콩을 좀 볶으라고 했고 그 동안에 나와 위에 두 아이는 가정의 밤 교재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가정의 밤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밤이며 그것은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야 하거나 이야기로 단막극을 준비해야 할 경우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일에 착수합니다.

“콩을 볶으면서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셋은 주제를 뽑아 잠시동안 함께 읽었습니다. 리치는 제가 이야기를 읽겠다고 제의했고 줄리는 성경 봉독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듣고 우리가 토의하는 그 볶음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얻은 행복에 관하여 간증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팀으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는 즐겁고 영감적인 가정의 밤을 가졌으며 전혀 나는 그것이 짐스럽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행동이 눈에 떨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이로써 가정의 밤은 재미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순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를 쓴 다음 나는 나 자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밤을 가지면서 다시는 마음을 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타임 아웃’을 부르고 밖으로 나가 냉수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나는 냉수를 여러 사발 마셔야 했지만 마음으로 정한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쉬는 법도 배워야 한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공과반은 아닌 것이다. 이 시간은 가족이 집에 함께 모여 저녁 시간을 같이 갖는 시간이다. 자녀를 꼭 줄지어 앉힐 필요는 없다. 아이들이 마루 바닥에 누든지 팔을 피고 앉든지 상관할 바가 있겠는가? 그렇게라도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 아빠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앉아도 괜찮다고 본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써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가 그것을 알게 되면 영원성의 중요함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탕을 준비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야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좀 지루해 하는 기색이 보이면 곧 노래를 시키든가 함께 노래를 한다면가 무용을 시키든가 놀이를 한다. 작은 아이들이 정도가 높은 가족간의 토론에 싫증을 내어 장난감 자동차 놀이를 하겠다고 하거든 그대로 허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차가 클 때는 그 모두가 학교의 한학급처럼 통일성 있는 행동을 취해 주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가정의 밤 평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는;

“애들아, 가정의 밤이 재미있니?”

이 한마디이다. 가정의 밤을 가지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녀가 가정의 밤 순서를 즐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르치는 두려움을 쉽게 극복한다. 공과는 날이 갈수록 대화의 형식이 되고 강의의 모습을 날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아버지는 공과를 진행하다가 일곱살 짜리 딸 아이와 눈만 마주치면 곧 이야기가 본론에서 빛나가게 된다면서 정이 가득 담긴 어조로;

“캐더린, 넌 정말 예쁘다. 비가 크면 넌 남자 친구를 알게 될거구 그 아이는 너를 좋아하고 너도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될거야. 너는 내게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말할대지. 그럼 나는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와 싸우겠다고 말할거야. 그렇지

만 곧 그를 만나 나도 좋아하게 될거다. 좀 지나면 어느새 너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거야. 그러면 날을 잡아 일찍 신전으로 함께 갈테지. 거기서 영원한 결혼을 한단 말이야. 엄마하고 나하고 한 것처럼 신전 결혼을 하면 캐더린!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애들아, 신전은 영원한 결혼을 하는 곳이란다.”

상호 존경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강의가 아닌 부정의 넘치는 이 설명으로 값진 마음의 교환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억지나 강요가 개입되지 않는다. 우리가 영감으로 전달 받아 마음으로 아끼는 그러한 것들은 자녀에게 강제로 전달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준비되는 어떤 순간에 메시지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된다. 자유로운 의사 발표와 대화가 가능한 가정의 밤을 통해서 자녀는 자기들이 인간적인 내우를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들의 움직임은 생동하는 창의적인 것이 되게 된다. 십대의 고집은 매일 매일의 마음의 대화와 유대를 통하여 상호 협조와 관심으로 바뀌게 된다.

부모가 듣는 비결을 터득하게 될 때 보다 잘 가르치는 비결을 체득하게 된다. 한번은 어떤 십대에게 이야기를 시켰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 가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요. 식탁에 홍당무가 너무 많이 오르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아이 엄마는 즉각;

“홍당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 말야. 너 다시는 음식에 대해서 투정을 하지 말아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홍당무나 그밖에 음식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집의 가정의 밤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때 그 아이 어머니가(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했다면 어땠을까—

“너 정말 홍당무가 싫으냐 정말야?”

그랬다면 그 아이는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 지고 가르침을 받아 들이겠다는 자세를 갖추게 되며 결코 존경과 사랑이 작용하여 가르침이 전달되는 것이지 강압으로는 곤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모의 입장이나 표준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녀로 하여금 즐겁게 동조하게 하라는 뜻이며 그것을 강압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관찰한 결과 적어도 열 아홉 가지는 옳게 하고 나머지 하나를 잘못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다.

“나는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는 동안에는 자녀를 칭찬하는데 시간을 쓰지 결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본 저들이 잘한 일을 들춰내지 못한 것을 꼬집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밤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한 소년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의 좋은 점을 다 이야기 하려면 아마 오늘 밤이 새도록 이야기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 이야기에 아버지도 감동되어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동감이다. 나는 엄마를 아주 사랑해” 이 소리에 엄마 얼굴은 활짝 펴졌다.

그후 아버지는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식사를 했지요.”

가정의 밤은 자녀들에게 학교 생활을 이야기 하게 하는 시간이다. 자녀 중에 막 읽기를 배운 아이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과서 제1과를 읽을 기회를 갖는다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 아이는 자기의 방금 연마한 실력을 자랑스럽게 뽐내려 할 것이고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결의를 굳게 할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대개 학교 생활이 원만하고 성적이 좋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정의 밤이란 안 가지면 안되는 모임이 아니고 갖도록 해야 하는 모임이다. 여러 해를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애들아 교회는 참되다. 우리는 너희 부모로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의 부모가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정이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애들아 요셉 스미스가 숲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는 살아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이시란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다. 예수가 택하신 형제의 가르침 대로 살면 결코 타락에 빠지지 않을 거다”

예언자는 “이러한 가정의 자녀는 그릇된 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가정의 밤을 갖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므로써 책임감도 있고 봉사하겠다는 의욕도 대단하고 덕을 사랑하고 굳건한 간증을 가지며 남을 사랑하고 남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을 두게 될 것이다. ○



회원을 강하게 함

선교부장 부라운

● 11년 전 제가 이곳을 떠난 이래로 한국땅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장과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교회 회원의 발전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 있을 때에만 하여도 한국 성도들 중엔 지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훌륭한 회원이기는 했지만 어렸고 경험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성숙한 한국 성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교회 부름에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현명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의 발전은 대단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이 특별한 시기에 한국에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역대 선교부장은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함에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선교부장으로서의 주요 목표의 하나가 교회 지도자를 강하게 만들며 되도록 보다 큰 책임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테이크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스테이크 조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회원이 신전엘 갖다 와야 하겠고 십일조, 금식 헌금, 지부 예산, 건축 기금 헌납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지부에서는 가정 복음 교육, 계보, 선교 사업, 가정의 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크는 선교부와는 별개의 독립 조직입니다. 스테이크는 지역 지도자가 인도하며 선교부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날 선교부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부와 함께 일할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며 아울러 선교 사업에도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위대한 달성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결심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보다 더 부지런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성도를 사랑하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룩한 위업을 보아왔고 여러분의 사랑과 충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나라에서 주님을 위한 사업에 저의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

부라운 선교부장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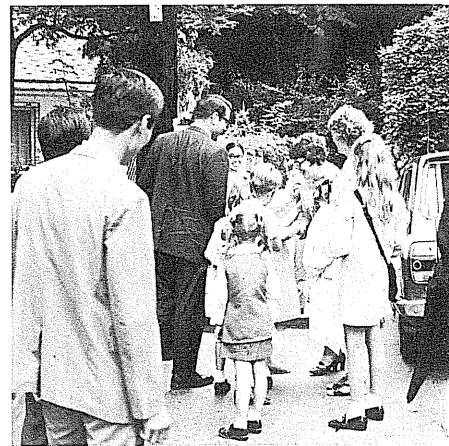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제 4대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부라운(로웰 에드워드 부라운)박사 부처와 다섯 자녀가 지난 7월 2일 도착하였다.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대관장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10번째의 선교사가 되는 그는 테일러, 스트리비, 하킨스 선교사들과 함께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선교사로 일한 바 있다. 고 김 호직 박사의 서거로 후임(2대)한국 지부장의 중책을 맡은 그는 북극동 선교부 예하의 지방부로서의 연락과 대부분의 회원이 학생이어서 지도자를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의 지도자로서, 동료 선교사의 관리자로서 놀라운 행정력을 발휘

한 바 있다.

3년간 봉사하게 되는 그는 현황 파악을 위해 연일 그의 보조들과 회의를 갖는 등 바쁜 스케줄 속에서 생활을 한바 있다. 7월 4일 신구 선교부장이 함께 한 첫 공식 집회에서 그는 십여년전에 훌륭히 구사하던 한국말을 더욱 완전히 해 보여 한국에 대한 그의 열의와 사랑을 엿볼 수 있게했다.

옛날 선교사 시절에 2년반을 용케도 참아주었다고 소개한 그의 부인은 "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한국에 여행으로가 아니라 온 식구가 함께 와서 생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도착 첫날의 모습들.



서 현보 박사 귀국

제 3대 선교부장으로 이 땅에서 지난 3년간 봉사를 한 서 현보(로버트 에이치 슬로버)박사와 그의 가족이 지난 7월 5일 한국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고 이별하였다. 선교부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편의 내조자로서 공이 컸던 그의 아내와 아버지보다 5개월 먼저 선교사로 한국에 와 있던 큰아들, 그리고 차남, 여식등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땅에 온 그는 한국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100여 선교사의 아버지로서의 3년을 보냈다. 그는 재임 기간중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기존 회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의 재임 기간중 2개 지방부가 4개로, 5개 지역이 지부로 승격되었으며, 새로이 개척된 7개 지역 가운데에서 3개가 지부로 승격되어 모두 23개의 지부 혹은 지역에서 예배를 보는 발전을 가져왔다.

끝없는 사랑의 깊이를 은근과 끈기로 표현했던 그와 꾸밈없는 인간성과 선교부 전체의 어머니였던 그의 부인은 아마도 지구를 몇바퀴 도는 여행을 이땅에서 했으리라.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그는 한국 동란중 군인으로 참전하여 동성 무공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선교사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큰아들은 한국을 위해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 바 있으며 작은 아들은 3,4년 후 선교사로서 이땅에 오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가족과 한국 성도들과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나 보다.

서 현보 박사는 프로보에 살면서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정치학 강의를 계속하게 된다.

사진: 그의 재임 기간의 여러 모습들이다.



